한갑진회장, 영화 127편및 각종사료 동국대 기증

"불교와 한국영화사 공부 요긴하게 활용"

한갑진 회장(한진흥업)은 5일 오전 11시 동국대 김희옥 총장을 방문해 소장하고 있던 한국영화 필름 127편과 각종 대본, 포스터, 스틸사진, 영화기자재, 비디오테이프, 영화서적 등을 동국대에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한 한국 영화관련 자료는 연구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호국 팔만대장경〉 등 불교 관련 영화는 보존 가치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故 이만희 감독과 故 하길종 감독 등 한국 현대영화사에 큰 획을 그었던 감독들의 초기 작품 필름도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한진흥업 한갑진 회장은 "영화예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동국대가 이 자료를 잘 보관해서 후학들이 불교와 한국영화사를 공부하는데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기쁜 마음으로 전하게 되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한갑진 회장은 불교영상매체들이 생겨나기 전인 90년대에는 각종 불교관련 다큐멘터리를 직접 제작해 보급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고, 그 당시 제작된 작품들도 이번 기증작품에 포함되어 있는데 〈스리랑카 불교〉 〈부처님의 세계〉 〈한국의 불교〉 등 불교 다큐멘터리들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김희옥 총장은 "귀중한 각종 사료들을 기증해 주신 한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증해주신 중요한 영화 사료들을 후학들의 연구에 귀중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한 회장님은 불교 다큐 작품 제작과 불교 관련 저서를 내셔서 포교에도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덧붙였다.

동국대 이사장 정련스님은 "한 회장님은 불교 영화를 찍으셔서 불교 신도 및 사회에 큰 문화적 포교를 많이 해주셨고, 〈알기쉬운 불교〉 〈부처님의 생애〉 등 불교 저서를 내셔서 기증을 많이 하신 걸로 안다."며 "후학들이 연구 활동하는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갑진 회장은 1966년부터 영화 제작 및 보급을 시작해온 한국 현대영화사의 산증인이며, 한국영화제작사협회 회장, 세계영화제작자연맹 이사, 한국도서유통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진흥업 외에도 한진출판사와 한진영상 대표를 맡았던 대표적인 불자 영화인이다.

영화사 한진흥업(주)은 1966년 설립되었으며, 1992년 마지막 작품으로 조세희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981), 몬트리올 국제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이혜숙)을 수상한 〈은마는 오지 않는다〉(1991), 16회 대종상에서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한 〈난중일기〉(1997) 등 총 90여 편의 영화를 제작했고, 외화인 〈록키〉, 〈007 나를 사랑한 스파이〉, 〈스팅〉 등 2백여 편에 가까운 영화를 수입한 영화수입사이기도 하다.

한편 불교관련 저서로는 〈알기쉬운 불교〉, 〈인도와 불교〉,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 등이 있다.

"사부대중 수행 뒷받침하는 머슴적 사고로 소임말아"

천태종 새총무원장 도정스님

Q먼저 천태종 제16대 총무원장에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새 총무원장에 임명소감은.

△ 제가 조사스님 설법을 듣고 감명받아 입산했던 45년 전은 구인사에 전깃불도 들어오지 않아 촛불을 켠 채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 시간을 내서 관음정진을 하면서 무척이나 힘들게 살았습니다. 출가 당시 조사스님의 가르침이 '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느낀 신념으로 지금까지 가르침을 확신하고 살아왔습니다. 출가할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그 어려운 난관도 잘 헤쳐나가리라 봅니다.

그리고 총무원장직은 봉사의 자리입니다. 사부대중 수행하는데 뒷받침하는 머슴적 사고로 임하겠습니다.

Q 스님께서는 천태종의 향후 4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 한마디로 말한다면 '수행과 화합'입니다. 천태종은 지난 몇 년 동안 전국 사찰에서 '백만독 관음정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불자들이 100일간 매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하루 6시간 정도 법당에 모여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는 수행인데, 당시 전국 92개 사찰에서 1만7,0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100일간 하루 두어 시간만 잠을 자며 생업과 수행을 병행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수행풍토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종단의 안정과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Q 천태종 새해 예산이 최근 확정된 바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어떤 분야인지, 내년에 예상되는 천태종의 가장 큰 행사는 무엇인지 알려 주십시오?

△ 내년 천태종 예산은 177억여 원인데, 지난해에 비해 0.86% 증가한 수치입니다. 상월대조사님 탄신 100주년 후속 사업으로 진행되던 문화·예술 및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이 소폭 감소된 반면 포교당 개설, 사찰부지 매입, 구인사 박물관 운영 관리 부분이 소폭 증가됐습니다. 금액으로는 소폭에 불과하지만 대외적 활동보다는 내실다지기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Q 머지않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새 대통령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국민들은 어떤 대통령을 선택해야 할까요?

△ 오늘날 대통령에게 가장 바른 도리(덕목)은 '청렴'입니다. 즉, 본인은 물론 친인척이 일체의부정부패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도 척결해야 합니다. 그런 풍토가 자리 잡으면 국민들은 조금 배가 고파도 불만을 참아냅니다. 서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이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생겨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해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최고 덕목이 '청렴'이라면 국민들 역시 가장 청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합니다.

찬불동요 창작곡

풍경소리 35집 발매

'낙엽이 우수수 겨울 맞이가 시작 됩니다
언제 우리 곁에 다가왔는지 벌써 나무들은 하얀 눈 옷 입을 준비를 합니다.
한발 자국 두발 자국 연꽃 닮을까
세발 자국 네발 자국 부처님 닮을까
서른다섯 번째 풍경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처마 끝 풍경을 울리는 눈이 내립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중에서)

좋은 벗 풍경소리(총재 지현 스님)는 찬불동요 창작곡 서른 다섯번째 앨범으로 풍경소리 35집을 발매했다.

좋은 벗 풍경소리 총재 지현 스님은 "풍경소리 찬불동요 창작곡집은 1994년 1집 발표를 시작으로 매년 여름 . 겨울 불교학교를 위해 두 장씩 발표해왔다"며, "전국 단위 연수회 및 강습회의 교재로 활용, 일선의 어린이 법회와 불교학교에서도 찬불가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강신문 남동우 기자 〈장인을 찾아서〉 최우수상

20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

올해로 20회를 맞는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이 12월 5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시상식에서 금강신문 남동우 기자는 〈장인을 찾아서〉라는 기획특집 기사로 신문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는 KBS-1TV 〈히말라야에서 부처를 만나다〉가 선정됐다.

신문부문 우수상에는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불교는 서원의 종교-함께 행복합시다〉가 선정됐다.

불교언론인상에는 최정희 현대불교신문 편집이사, TV부문 최우수상에는 아리랑TV의 , 우수상에는 SBS 힐링캠프의 〈법륜스님 편〉, 라디오 부문 최우수상에는 부산불교방송의 〈힐링, 나를 바라봅니다〉, 우수상에는 국악방송의 〈천년소리 풍경〉, 특별상 인물 부문에는 용정운 홈페이지 부다일러스트 〈회향〉 운영자, 특별상 작품부문에는 MBC 드라마 〈무신〉, 김갑식 동아일보 기자의 〈송월주 회고록〉이 선정됐다.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개천사	강순시	11/16	10,000	기 로	해 정	11/21	10,000	선립사	정복지	11/20	10,000
건화사	이연호	11/12	5,000	단음사	천 공	11/5	4,000	성화사	우담바라회	11/16	50,000
관성사	박현숙	11/1	10,000	단음사	법연지	11/19	10,000	수인사	김봉기	10/29	10,000
관성사	인 선	11/19	20,000	덕화사	시 정	11/19	10,000	수인사	장영택	11/2	50,000
관성사	황성녀	10/30	10,000	덕화사	원만원	11/19	10,000	승천사	원 봉	11/16	10,000
관음사	신막심	10/29	20,000	덕화사	하순옥	11/21	5,000	승천사	지선행	11/16	10,000
국광사	홍순직	10/30	100,000	만보사	정덕순	10/31	20,000	실보사	이순옥	10/29	10,000
기 로	대 관	11/19	10,000	밀인사	정정희	10/30	5,000	실보사	이 순	11/23	10,000
기 로	대자행	11/19	10,000	밀인사	이혜성	10/31	20,000	정각사	구정희	11/15	20,000
기 로	밀공정	11/19	10,000	백월사	김헌중	11/21	10,000	정각사	김문수	11/16	10,000
기 로	법수원	11/19	10,000	벽룡사	윤지원	11/6	10,000	지인사	승효제	11/16	10,000
기 로	법장화	11/19	10,000	벽룡사	윤수지	11/6	10,000	지인사	허성동	11/23	30,000
기 로	법지원	11/19	10,000	벽룡사	무명씨	11/6	10,000	혜정사	김경미	11/22	20,000
기 로	불멸심	11/19	10,000	벽룡사	무명씨	11/6	10,000	화음사	송호영	11/19	10,000
기 로	사홍화	11/19	10,000	벽룡사	양정현	11/19	10,000	화음사	송영근	11/19	10,000
기 로	상지화	11/19	10,000	벽룡사	양지현	11/19	10,000	흥국사	지 정	11/16	20,000
기 로	수증원	11/19	10,000	선립사	황귀석	11/6	10,000		진 평	11/5	5,000
기 로	총지화	11/19	10,000	선립사	정항식	11/20	10,000		윤정울	11/13	10,000
기 로	선도원	11/19	10,000	선립사	심지장	11/20	10,000		김갑선	11/19	10,000
									원정언	11/20	30,000
									김정악	11/23	10,000

10월26일부터 11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불교의 선정 13

사념처수행의 준비 단계와 순서

삼업청정이 되어야 사념처를 닦을 수 있어
십선업으로 수행의 토대를 마련해야

화 령
(중앙교육원장)

사념처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는 오계를 잘 지키고 정견을 지니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했다. 계행을 지키는 것을 등한시하고 바르지 못한 견해를 지니는 사람이 수행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런데도 우리 한국불교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절제를 무시하면서도 "뭔가 한 방이 터져줘야 하는데..." 하면서 죽은 화두를 붙들고 용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다.

사념처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되어야 할 것은 지계와 정견이며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삼업을 정화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장아함경》 권20에서는 "선법을 닦아 십선업을 갖추게 되면 이러한 사람은 수많은 신들이 옹호한다.(修行善法, 具十善業, 如是一人, 有百千神護)"라고 했다. 사념처 수행에는 여러 가지 조건과 선결 과제가 있지만 신, 구, 의 삼업의 청정이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조건이다. 바른 계행으로서 정견이 확립된 다음에는 삼업을 청정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는 마치 더러운 물병에 마실 물을 담을 때 물병을 깨끗이 헹궈내지 않으면 그 물을 못 먹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신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 것도 담을 수 없다. 사견을 지니고 비루한 언행을 일삼는 사람이 어찌 청정한 도의 그릇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사념처 수행의 우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다.

경전에서 말하는 삼묘행(三妙行)은 바로 이 삼업청정을 두고 하는 말인데 십선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업청정의 내용이다. 밀교에서는 이를 좀 더 고차원적으로 해석하여 삼밀행이라고도 한다. 십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10가지 업을 선업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몸으로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을 행하며 입으로는 망어, 양설, 악어, 기어를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는 탐심과 진심, 그리고 사견(邪見)을 지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것이다.

신업은 3가지로 가장 먼저 불살생을 든다. 불살생은 모든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 뿐 아니라 무한한 자비심으로 모든 생명을 아끼고 보호해야 하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어야 한다. 불투도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인데 공공 물건을 함부로 쓰고 혈세를 낭비하며 폭리를 취하는 것들도 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보시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위로 발전해야 한다. 불사음은 출가자들은 무조건 음행을 금지해야 하지만 출가하지 않는 재가자들은 정당하지 못한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이며 불사음을 통하여 자기는 물론 다른 사람의 청정함을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구업에는 거짓말을 하는 망어, 이간질을 하는 양설, 거칠고 모진 말을 하는 악어,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험담하며 비웃는 등의 모든 희론과 진실되지 못한 말을 하는 기어의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삼가는 것이 구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신의가 있는 정직한 말을 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하며 화합을 도모하고 바른 사람을 칭찬하는 등의 말로써 모든 인간관계를 긍적적이고 화목하게 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의업은 마음으로 짓는 것으로서 욕심을 부리는 탐욕심, 화를 내는 진에심,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우치심이 이것인데 사실은 이 세 가지의 의업이 밖으로 나타나서 신업과 구업을 짓게 되므로 탐진치를 삼독이라고 하는 것이다. 삼독이 제거되지 않으면 사념처 수행이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신업, 구업, 의업의 청정 곧 십선업의 바탕이 있어야 사념처 수행이 가능해지고 완전한 해탈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사념처의 수행순서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의 순서로 닦아야

삼업이 청정해지고 마음의 산란함이 가라앉으면 비로소 사념처의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 《염처경(念處經)》에 의하면 사념처를 수행할 때는 먼저 호흡을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이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몸의 부정을 관찰하라고 했다. 왜냐하면 마음이 산란할 때는 먼저 마음을 호흡에다 고정시켜 가라앉히는 방법이 가장 수월하기 때문이다. 호흡관찰을 통하여 점차 마음을 가라앉혀 미세하게 한 후에야 몸이 관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란한 마음으로 몸의 부정을 관하면 도리어 역효과가 나타나 자아라는 것에 더 집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이 고요해진 후에 몸의 부정을 관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념처 가운데에서 신념처를 먼저 닦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행을 막 시작했을 때에는 마음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쉽게 주의력이 흐트러지고 산만해지기 때문에 사념처의 대상 가운데에서 가장 뚜렷하고 명확한 것은 역시 우리의 신체이기 때문에 신념처 수행을 먼저 하는 것이다. 또한 신체는 마음과 달리 비교적 움직임이 적고 변화가 적기 때문에 신체상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수행을 막 시작했을 때에는 지각 능력 또한 약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화하는 즐겁고 괴로운 느낌이나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려고 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관찰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더구나 법념처의 대상인 법은 더욱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깊은 지각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파악할 수 있다. 사실은 심념은 법진(法塵)보다 미세하지만 마음의 무상을 관하는 것이 법무아를 관하는 것보다는 용이하므로 신념처 다음으로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의 순서로 닦아 나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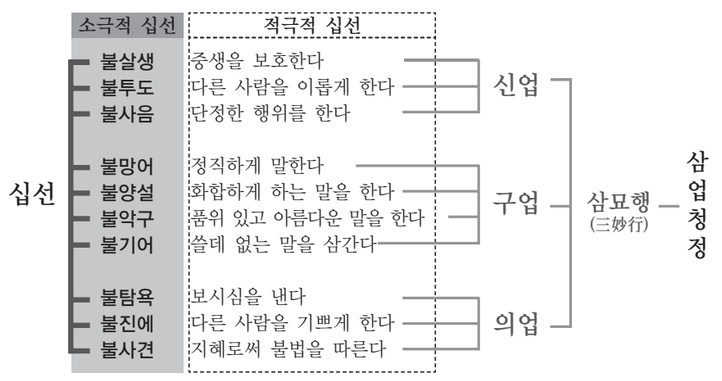
《잡아함경》에서는 개, 까마귀, 뱀, 멧돼지, 악어와 원숭이를 한 말뚝에 매어 놓으면 성질들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내달리므로 말뚝이 움직이지 않지만 이것들이 만약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 말뚝이 뽑혀 도망갈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한 곳으로 향할 수가 있다면 도가 트일 수가 있다는 비유를 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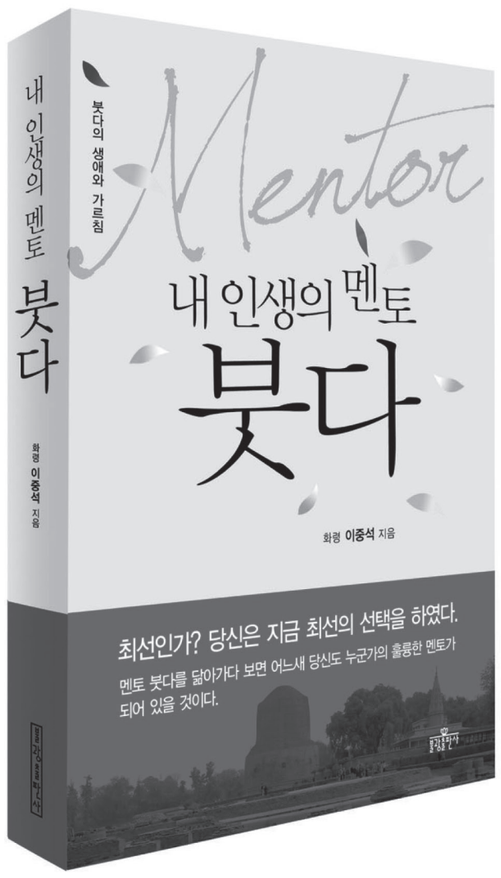
신념처 수행 하나만 잘 해도 나머지 삼념처 수행을 통섭할 수 있으며 신념처의 수행 정도를 보아가며 나머지 삼념처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념처는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의 순서로 닦아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사념처 수행의 차례

법념처	마음의 대상을 관찰하는 법념처는 다른 염처보다 더 심오하고 알기 어려우므로 더욱 깊은 지각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진리에 통달할 수 있다
심념처	마음은 드러난 현상[법]보다 더 세밀하게 작용하지만 마음의 무상을 관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법념처의 아래에 둔다
수념처	우리의 느낌, 즉 감수작용을 관찰하는 것으로 신념처보다 더 세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념처	가장 명료하고 분명하며 변화가 적은 몸에 주의력을 쏟는 것이 가장 쉬우므로 사념처의 처음에 온다

십선과 삼업청정





고려 대장경 천년의 해, 한국인이라면 반드시 불교를 알아야 한다.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

최선인가?

당신은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하였다. 삶을 변화시키는
인류의 영원한 스승 붓다와 만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달라진다.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들 곁에는 붓다가 있었다. 당신도 붓다를 닮아간다면 다른 사람의 훌륭한 멘토, 세상을 바꾸는 존재가 될 것이다.

화령 이중석 지음
432면 | 18,000원

내 인생의 멘토 붓다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 420-3400 www.bulkwang.co.kr | 트위터: @bulkwang_c | 페이스 북: www.facebook.com / bulkwang | 블러그: blog.naver.com / bulkwanger

총지동의보감

여성냉증

조선화 원장
〈여성 美 한의원〉

한의학에서는 냉증을 전신적인 순환 장애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혈허(血虛)라고 하는데 이는 피가 차고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냉증의 부위와 빈도를 보면 수족냉증이 전체의 50%이상으로 하복냉증과 더불어 다양한 부인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 여성냉증의 대표적인 수족냉증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신의 원활한 혈액순환으로 인해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할 체온이 따뜻한 실내에서처럼 차가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온도에서도 손, 발 같은 몸의 특정부분의 체온이 유독이 낮아지는 증상을 냉증이라고 하며 대표적으로 말초순환장애로 인해서 손발이 차고 냉한 상황을 수족냉증이라고 합니다.

흔히 수족냉증이 있는 사람을 집안에 있는 난방장치의 용량의 한계로 집 전체에 열이 골고루 퍼지지 않아서 추운 집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는 전신에 퍼지는 기의 흐름이 순조롭지 못해서 몸의 말단부분까지 열이 미치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보통은 기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겨울에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지만 1년 내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춘기, 출산 후 산모, 갱년기 여성,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난소낭종, 자궁근종 등 자궁질환을 지닌 여성, 근육양이 적은 여성에게 주로 나타나며 배, 무릎, 팔꿈치에도 동반증상이 나타납니다.

평소에 피로를 쉽게 느끼고, 입맛이 없으며,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것도 이 증상의 특징입니다.

수족냉증의 원인은 첫째 기허- 경락을 타고 흐르는 양기가 부족하여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둘째, 혈허- 간의 기운이 손상을 받아서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셋째, 비장, 위장의 허약-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화기의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경우 넷째, 체질적 요인- 소음인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신적인 이유로 잦은 불안, 걱정, 심한 우울증도 수족냉증을 야기 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족냉증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활습관, 식습관, 운동요법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평소에 신진대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단백질의 섭취를 늘리고 비타민과 무기질의 보충도 빼먹지 말아야 합니다.

차가운 음식, 음료는 가급적 피하고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셔 몸의 냉기를 조절하면 좋습니다.

가벼운 걷기운동, 손뼉치기, 조깅과 더불어 적절한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과 근육양을 늘리는데 더 없이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온상승 및 유지 효과가 큰 반신욕과 족욕도 증상완화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남이 모르는 나만의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야 하겠습니다.

〈계속〉

불자생활법률

불자변호사 하동길 변호사의 생활법률이 시작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매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건물 주인이 상가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경우 규제방안은?

저는 1년 전 김씨소유 상가건물 3층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김씨는 계약기간 만료 전 2월이 되자 저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임대료를 50%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1,000만원~1,500만원의 돈을 마련하자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건물주 김씨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요구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은 없는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①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의 요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10조는"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 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 등이 임대물에 대한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장래에 대하여 차임 등의 증감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가임차인에게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권이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위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임대인이 차임 등의 증액을 청구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증액 시에도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물주 甲 의 청구액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 즐겁게 만드는 건강 요리

굴 밥
-입맛 돋우는 건강식

또한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 얼굴 색을 붉게 하며, 피부 미용에 좋을 뿐 아니라 빈혈 완화 및 빈혈 예방의 효과도 있다.

재료 준비(3~4 인분)

쌀 2.5 컵, 굴 200 g, 무 100 g, 밤 3 개, 은행 10 개, 완두콩 2 큰 술, 대추 4 개, 다시마 물 2.5 컵(다시마 사방 10 cm + 물 2.5 컵), 참기름 1 큰 술, 소금 약간

양념장; 간장 5 큰 술, 고추 가루 1 큰 술, 다진 파 2 큰 술, 다진 마늘 1/2 큰 술, 다진 청양고추 1 큰 술, 다진 홍 고추 1 큰 술, 참기름 1/2 큰 술, 깨소금 1 큰 술

조리 방법

1. 쌀을 씻어서 반 시간 정도 불리고, 굴은 껍질을 골라낸 후 옅은 소금물에 씻어서 채에 받쳐 둔다.
2.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쌀을 볶다가 다시마 물을 붓고 끓인다.
3. 끓으면 밤, 완두콩, 채 썬 무를 넣고 한 번 더 끓인 후, 불을 줄이고 뜸을 들인다.
4. 뜸 들일 동안 양념장 재료를 위의 분량대로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5. 쌀이 퍼져서 밥이 거의 다 되면 굴, 대추, 은행을 넣어 살짝 익혀 굴 밥을 완성한다.

기타 팁

1. 굴은 마지막 과정에 넣어 살짝 익혀야 맛과 향이 살아 있게 된다.
2. 다시마 물은 찬 물에 다시마를 담가 반 시간 정도 우려서 사용한다.

편집 정리 =백지순 위원

굴의 효능

굴은 가을부터 봄까지 날씨가 추워질수록 제 맛을 내는 보양음식으로서, 단백질, 칼슘, 철분, 타우린, 아연, 망간, 글리코겐 등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바다의 우유'라고 불린다. 또한 굴은 다른 패류에 비하여 조직이 부드럽고 영양분의 흡수가 빨라 나이에 관계없이 전 연령대에서 먹어도 좋은 건강식품이다.

굴은 청소년기의 성장 발육에 좋고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중 장년기의 골다공증 예방과 강정의 효과도 있다.

저주파 치료기

혈액 분석기

여성병(부인과)클리닉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좌훈욕기

비만 클리닉

온열 전기침

가족 클리닉
(보양, 수험생 등)

자동팔강진단기

저주파 치료기

언제나 열린마음으로
상담해드립니다

문의 & 상담
02) 545 - 0072

온라인 상담
www.women119.co.kr

여성美한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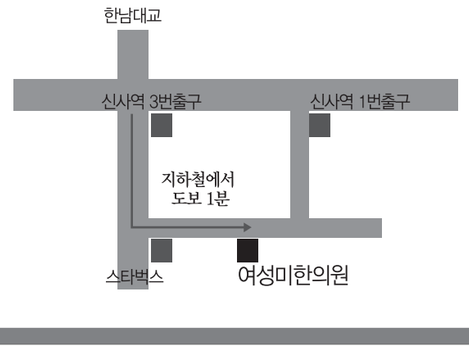
진료과목

1) 비만클리닉
여성 : 자궁 다이어트
남성 : 복부 다이어트

2) 여성병(부인과)클리닉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생식기병 : 장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붕루증, 자궁선근종, 요실금.
임신병 : 불임, 임신오저(입덧), 임신중독증 등.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 좌약 요법 (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3) 가족클리닉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

오시는길



진료시간
평일 9:30~18:30
주말 9:30 ~16:00
점심시간 13:00~14:00

영화에서 불교보기 (25)

환생, 초심자 서양인을 사로잡다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리틀부다>

이 영화 〈리틀 부다〉(미국, 1993)에는 서양에서 뿌리 내린 불교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서양에서의 불교는 티베트 불교에 가깝습니다.

티베트불교의 중심사상인 '환생'이 서양 불교인들 사이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불교는 이 환생 개념을 바탕으로 형성된 불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는 이러한 서양 불교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리틀 부다〉는 〈쿤둔〉의 감독 마틴 스콜세지처럼 거장의 반열에 오른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베르톨루치는 이탈리아 영화사에서 가장 뛰어난 감독 중 한 사람입니다. 베르톨루치 최고의 작품인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는 수많은 논문의 소재가 된 영화입니다.

이렇게 논문의 소재가 될 만한 영화를 만드는 감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갖고 있는 몇몇 감독에게나 주어지는 영광이지요.

이 거장은 어느 때부터인가 동양에 관심을 가졌고, 그렇게 탄생한 영화가 〈리틀 부다〉입니다.

이 영화는 동양에 대한 호기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첫인상이라고, 서양인의 눈에 비친 동양의 신비로움이고, 불교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초심자 서양인의 눈에 비친 불교는 무엇일까요?

서양인은 '환생'에 주목했습니다. 이 환생이라는 테마는 서양인들이 만든 불교영화의 단골 소재입니다. 이 영화〈리틀 부다〉가 더 오래됐지만 후의 〈쿤둔〉도 그렇고, 〈티벳에서의 7년〉도 그렇고, 그들은 모두 환생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어쩌면 '불교는 환생'이라는 공식을 갖고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인들이 환생에 특히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서양에 전해진 불교가 달라이라마 중심의 티베트불교기 때문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환생' 개념이 서양인들의 의식이나 문화, 전통과 통하는 구석이 있었으리라 여깁니다.

단지 티베트 불교가 먼저 서양에 발을 디뎠다고 티베트 불교 중심의 불교가 서양에 전개되었다기보다는 '환생'의 개념이 서양인의 마음을 위로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실용주의적 전통을 가진 서양인들은 그게 무엇이던 삶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못한가로 가치를 평가하는 편인데, 윤회나 환생의 개념은 분명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지요.

이러한 일련의 수용 배경이 영화 〈리틀 부다〉에 엿보이는 편입니다.

영화의 시작은 염소가 등장하는 우화입니다. 죽을 처지에 빠진 염소가 웃으면서 자신은 이제 죽으면 다음번에는 사람으로 태어날 차례인데, 자신을 죽인 성직자는 지금 자신을 재물로 바친 악업 때문에 장차 무수한 세월 염소로 태어나 재물로 바쳐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성직자는 염소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한다는 내용입니다.

영화는 이 이야기를 통해 환생의 구조와 의미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염소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인 스승의 환생자 찾기 스토리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 염소 이야기는 우리 불교인의 입장에서는 군소리에 지나지 않지만 환생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처음 접한 서양인에게는 누차 설명을 덧붙여야 할 만큼 놀라운 개념이었던 모양입니다.

영화 꽤나 만들어본 거장 베르톨루치가 이런 식의 군말을 늘어놓은 것을 보면 이 환생 개념이 얼마큼 서양인에게 놀라운 것인지 실감났습니다.

염소 우화의 바톤을 이어받아 본격적인 환생자 찾기 과정이 전개됩니다. 스승의 환생자를 찾기 위해 티베트스님이 부탄에서 시애틀로 옵니다.

자신의 스승이 미국 시애틀에 사는 한 소년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노부 스님은 소년의 부모를 만나 당신들의 아들 제시가 자신의 스승인 도제스님의 환생자인 것 같으니 부탄으로 데려가 테스트를 거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제시의 부모가 티베트인이라면 영광스럽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겠지만 이들은 미국인입니다.

미국인에게 환생이라는 개념은 생소한 것입니다.

기독교적 환경에서 나고 자라온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환생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어서 이 지구에 다시 새로운 존재로 나타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였던 것입니다.

제시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시의 아버지에게 꽤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입니다.

친구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진 아버지는 제시를 데리고 부탄에 다녀오면서 그 감정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부탄에 다녀오면서 그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함께 다른 두 아이가 환생자 테스트를 받는 과정을 지켜보고, 노부 스님이 좌선상태에서 죽음에 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신의 아들 제시가 환생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친구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에서 쉽게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삶은 한 구간에 지나지 않기에 현재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환생이라는 커다란 사이클에서 바라봤을 때 현재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일부이지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몸과 육체를 중심으로 한 현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것이기에 마음을 온통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착심을 쉽게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친구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에서도 금방 벗어나고 훨씬 행복해지는 기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리틀 부다〉의 제시의 아버지는 서양인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몸소 체험함으로써 환생이라는 개념을 믿는 게 자신의 삶에 유익하다는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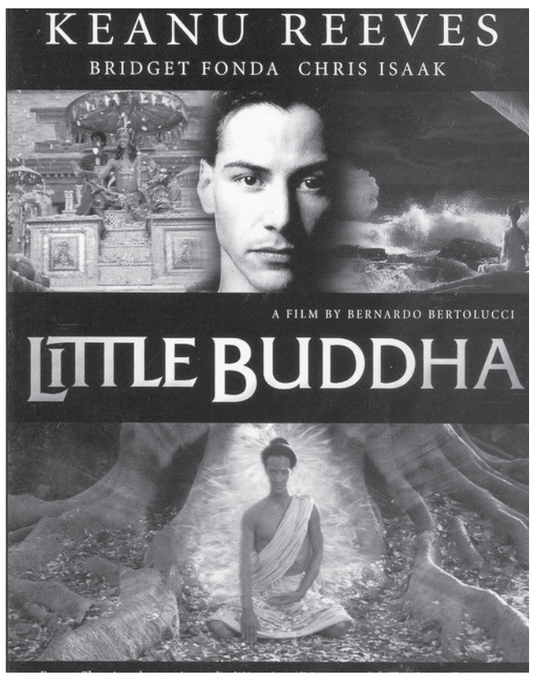
그래서 실용주의자 서양인들이 불교의 많은 개념 중 유독 이 환생에 집착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환생을 믿지 않는 것보다는 믿는 것이 삶을 제대로 살게 하고, 행복한 삶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영화 〈리틀부다〉에는 환생담과 함께 부처님의 일대기가 같은 비중으로 표현됐습니다.

제시가 노부스님에게서 선물로 받은 책의 내용으로 나오는 싯다르타 얘기는 제시 이야기와 함께 교차 편집됐습니다.

부처님 이야기는 부처님의 일생 중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찍었습니다.

룸비니 동산에서의 신비로운 탄생, 아시따 선인의 눈물, 생로병사를 목격한 슬픔, 왕궁 탈출, 지난한 수행, 수자타에게서 유미죽을 얻어먹는 장면, 마왕의 유혹을 뿌리치는 장면, 마침내 깨달음을 얻는 모습 등을 차례대로 보여줍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뛰어난 표현력에 의해 새로운 감동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9개 부문을 수상했던 영화 〈마지막 황제〉의 드림팀에 의해 촬영된 영화는 동양문화를 서양인의 시각에서 최대한 신비롭고 새롭게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 마왕과의 일전입니다.

이제는 인간적인 모습을 거의 극복한 부처님이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손을 내밉니다.

물속 부처님과 물 밖의 부처님이 서로 손을 맞잡은 채 밀고 당기며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때 물속 부처님의 모습은 마왕의 모습으로 돌연 변합니다. 사실은 마왕이었던 것이지요. 이 설정이 참 좋았습니다.

사실 우리를 가장 속이고 괴롭히는 것은 '나라는 생각'이니까요.

부처님의 일대기가 서양인에 의해 표현됐는데 역사적 인물로서 묘사하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도올 김용옥씨가 말했는데, 예수의 일생은 가장 신화적이면서 역사적으로 보여지기 위해 노력하는데 반해 부처님의 일생은 매우 역사적인데 이상하게 신화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안타까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양인 베르톨루치는 역사적 인물로 부처님을 묘사를 했습니다. 물론 처음 일곱 걸음은 신화적 요소를 지니지만 대체로 뛰어난 한 인간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이를 통해 불교가 사실적이고 역사적 종교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김은주 〈자유기고가〉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 전화문의 _ 불교총지종 통리원 02) 552-1080
각 사찰 주교님께 문의하셔도 구입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_ 우리은행 1005-480-047811
(재) 불교총지종 유지재단

1. 만다라 세트 (금강계 만다라 +태장경 만다라)
33cm X 33cm (액자포함)
30,000원

금강계 만다라 _ 金剛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서만다라고도 하는
이 만다라는 '금강정경'에 근거해 그려졌다.
중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것이다.

+

태장경 만다라 _ 服藏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정확하게는
'대비 태장생 만다라'이다.
대일경에 근거해 그려진 이 만다라는
태아가 모태 속에서 생육되어 가는 것에 비유해
대일여래의 보리심이 모든 생성의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2. 가정다라니
46cm X 27cm (액자포함)
27,000원

가정다라니

불교총지종

다가오는 총기 42년 새로운 모습으로
교도님들과 전국의 불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지난 16년 원정대성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정통밀교의 홍포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한 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교도님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총지종보 편집위원회
전국 통신원 일동 합장

불교총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우) 135-928 Tel: 02.552.1080~3 Fax: 02.552.1082

157호_C.indd 12 2012-12-07 오후 4:59:15

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종보

2012년 12월 7일
음력 10월 24일
월 간 발 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지성(이기식)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6년 제157호

창교절 유시문

오늘은 한국현대밀교의 개척자이신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정통밀교종단인 총지종을 창종하신지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원정대성사께서는 어려서부터 비범하여 한 번 보고들은 것은 잊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유년시절에 이미 사서삼경을 통달하시고 개화의 물결과 함께 현대 고등교육을 마친 후 불교에 뜻을 두고 한반도는 물론 중국, 일본 등지를 편력하시며 불경의 수집과 연구에 몰두하셨습니다.

그러시던 중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를 만나셨고 전쟁의 참상과 도탄에 빠진 민생고를 목격하시고 호국불교를 통해 나라를 구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큰 서원을 세우시고 마침내 1972년 12월 24일 총지종의 창종을 만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원정대성사께서는 밀교교리에 정통하셨을 뿐만 아니라 종단 운영에 대해서도 한국불교계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남기셨는 바 그 대표적인 것이 종단의 재단법인화입니다. 종단의 재단법인화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종단 운영의 기틀이 되어 일부 종단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 종단의 창종주 사후에 종권 다툼이나 재산상의 분규를 불식시킴으로써 한국불교종단의 미래에 대한 모범을 제시하신 것은 한국불교 1600년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교개종의 참뜻을 천명하시어 시시불공, 처처불공법으로 생활시불법 불법시생활의 진리를 체득케 하는 동시에 활동하며 닦고, 닦으면서 활동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는 생활불교 방편을 세움으로서 교상을 확립하였고 입교교의를 이에 두셨습니다.

원정대성사님께서는 종명을 지으실때 대한불교총지종이라 하지않고 불교총지종이라 명명하신 이유는 불교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모든 세계인들의 위한 종교이어야 하고 세상 모든 중생들을 대상으로 교화해야 한다는 큰 뜻 때문입니다.

총지종에서 창설한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에서도 알 수 있듯 총지종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하여 참 불교의 뜻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2007년 국제재가불교대회를 조직하고 매년 대회를 개최하여 동남아는 물론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등의 불자들의 참여로 총지종의 위상을 알림과 동시에 불교의 생활화와 세계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종조님의 대원력의 표출이며, 우리는 그 위대하신 뜻을 받들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금년 제7회 대회는 스페인의 요청으로 스페인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불교의 불모지인 유럽에서 총지종의 뜻을 이어받아 개최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또한 다음 대회는 일본의 최대 종단인 입정교성회가 개최하겠다고 신청한 것을 볼 때 매우 보람을 느낍니다.

창종 40주년을 맞은 오늘, 창종주이신 원정대성사님의 창종정신을 이어받고, 새 종풍운동을 실천하여 온세계가 불국정토가 될 수 있도록 용맹정진합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총기 41년 12월 24일
종령 효강 합장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시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 (弘布)합시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시다.

종단 교화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하는 최고의 자리

전국 기로스승 총회. 11월20-22일 까지 속초에서

종단 기로 스승들이 종단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고성군 대명콘도에서 '총기41년 전국기로스승총회'가 열렸다. 효강 종령예하를 비롯한 30명의 기로스승들은 종단 대형버스로 이동 여장을 풀고, 먼저 설악산 권금성을 케이블카로 올라 깊어가는 가을의 마지막 정취를 감상했다. 속초 동명항으로 이동하여 저녁 공양을 한 후, 척산온천에서 여정의 피로를 풀었다. 총회 이튿날에는 화진포 일대를 관불한 후, 통일전망대 통일대불에서 남북통일을 위한 서원불공을 올렸다. 기로스승들은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 백두에서 한라까지 총지 밀법의 진리가 전해지기를 서원했다. 대한민국 최북단 사찰인 건봉사의 부처님 치아사리 참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기로스승들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

효강 종령예하의 입장과 통리원을 대표해 지성 통리원장과 인선 총무부장이 참석했다. 간단한 상견례를 마치고, 집행부를 대표해 지성통리원장은 "오늘 같이 종단의 여러 스승들을 모시게 되어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이 자리의 스승님들이 교화의 일선에 계실 때, 종단은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약간의 정체된 모습에 집행부를 대표하고, 후배 정사로서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따끔한 질책과 성원의 법문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 효강 종령예하는 "종단의 어려운 사정에도 이번 자리를 만들어 준 통리원 집행부에 감사드린다. 이렇게 설악산에서 기로스승 만이 모인 건 처음입니다. 종단 초기 그 어려운 시절을 잘 이끌어 나간 것은 모두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불공과 교화의 덕입니다."며 "요즈음 들어 우리 종단에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지난 5회를 우리 종단 주관아래 개최하였던 '국제재가불자대회'가 이번에 스페인에서 대단한 규모로 열렸습니다. 우리 대표단 4명이 가보니 우리 총지종이 한국 최고의 종단으로 인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우도 최고로 받았답니다. 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참가한 일본의 입정교성회에서는 내년도 대회를 자진해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40여 년 전 종단을 창종하신 원정대성사의 세계불교로의 참뜻이 오늘에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내 교화도 중요하지만 세계교화라는 과제를 이미 우리에게 던져 주신 것 입니다. 바로 종조님의 뜻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종풍 운동을 통해 이루어야 합니다. 최근 종비생으로 공부하신 분들과 염송정진에 대한 실천적 체험을 체계화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기로스승 여러분들이 모범이 되어 후진들을 이끌어 주시고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며 최근 종단의 상황에 대해 유시하셨다.

종단 기로스승들은 그동안 경험은 교화의 방법과 종단 발전 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들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나온 얘기가 바로 "법을 바로 세우자"는 의견이다. 원정대종사께서 처음 창종 할 당시의 정신으로 초발심의 각오로 종단의 종지를 바로세우고 교화의 새로운 방편을 세우자. 또한 괴산 수련원의 조속한 완공으로 집중 수행 공간 확보와 장차 총지 밀교의 본산으로서의 역할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젊은 스승들이 시도하는 다양한 교화 방편은 아주 긍정적이다. 특히 이번 강공을 통해 발표한 다양한 방편들은 종단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발전 정착시켜야한다. 또한 이와 같은 총회를 자주 열어, 교화의 경험을 서로 나누는 자리를 같고 종단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로 했다. 이외에도 종단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으며, 집행부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강력한 추진력을 더 요청했다.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총회는 다음을 기약하며 아쉬운 자리를 정리했다. 통리원에서는 이날의 의견들이 종무행정 전반에 걸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속초=김종열 기자

〈종조 친필 육자진언〉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이 땅에 다시 밀교를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 중흥의 견인차 역할을 하시고,
의궤(儀軌)와 수법(修法)을 정립한 정통밀교 총지종을 창종하셨습니다.
총기 41년 창교절을 맞는 우리는 대성사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종단 중흥을 위한 대역사에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제41회 창교절

| 일 시 | 총기 41년 12월 24일(월) 오전 10시
| 장 소 | 전국 각 사원 서원당

새로운 방식의 번역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

총지종 법장원 간(刊)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이 총지종 법장원에서 출간되었다.

이번에 출간된 《초발심자경문》은 화령 교육원장이 번역한 것으로서 국판 170쪽의 양장본으로 원문의 토를 없애고 현대식 표점을 찍어 읽기 좋도록 하였다. 번역문 또한 현대에 맞는 표현을 써서 누구든지 번역문만 보고도 이해가 쉽도록 했다.

구구한 해설을 생략하고 유려한 문장으로 번역문만으로 이해가 되도록 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주를 달아 기존의 《초발심자경문》과는 차별을 두었다.

≪초발심자경문≫은 불교 수행의 길에 처음으로 들어선 사람들, 특히 출가수행자가 반드시 지녀야 할 마음가짐에 대한 글을 모은 것이다.

〈계초심학입문(誡初心學入門)〉과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그리고 〈자경문(自警文)〉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화령 교육원장은 "불교에 갓 입문한 초심자뿐만 아니라 출가한 지 오래된 승직자라도 이 글을 훈계삼아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더욱 자신을 경계하고 구도심을 돈독히 할 수 있을 것이라" 편찬이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화령 교육원장은 이 책을 출간한 계기에 대해 "옛 선인들의 간절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의 승가집단에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화령 교육원장은 "이번에 출간된 《초발심자경문》은 새로운 번역과 원문의 표점 표기로 경전 번역의 전범(典範)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라고 강조했다.

이 책은 불교서적 도매상을 통하여 시중에 배포될 예정이다.

화령 교육원장은 "많은 불자들의 법보시로 총지종에서 만든 책이 더욱 널리 보급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소매가: 12,000원
법보시가: 8,000원
문의: 통리원 (02-552-1080/김지영)

김종열 기자

서울 · 경인교구 총기 41년 정기회의 봉행

강원 화진포 일원에서

서울. 경인교구(교구장 법등정사)는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강원 화진포에서 교구 회의를 봉행했다.

교구장 법등 정사를 비롯한 14명이 참가한 이번 회의에서는 총기 41년 교구 주요 사업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주요 현안에 관해 논의 하였다.

내년에는 총지종을 대표하는 교구로 종단 주요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교구 독자적인 사업도 진행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회의 후에는 화진포 일원 주요 사찰을 방문, 참배하고 지난 일 년간 교화에 정신없이 보낸 노고를 잠시나마 있었다.

김종열 기자

충청전라교구 스승님 · 신정회간부 합동회의

충전교구 교화발전과 스승님과 사원 간부님들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2011년부터 연2회 충청전라교구 스승님 신정회간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는 11월13일 화요일 충남 금산군 진산 자연휴양림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충전교구 다섯 사원에서 스승11명, 간부18명이 참석하였으며 회의는 충전교구 교화발전을 서원하는 불공과 스승 · 간부 개별회의, 점심공양, 합동회의, 산행 순서로 진행되었다.

합동회의에서는 올해 충전교구 합동방생법회의 평가와 내년 방생법회의 방향, 충전교구 합창단 창단 등이 논의되었으며 합창단 제반 경비를 종단에서 지원해주기 바란다는 신정회의 건의가 있었다. 회의 시작 전 신정회 간부님들이 기로스승님들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공양비를 전달했다.

비가 오고 강풍이 부는 을씨년스런 날씨였는데 산행을 할 때는 구름이 걷히고 날씨가 맑았다. 그러나 산행이 끝나자 다시 눈비가 오고 바람이 거셌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한편 신정회간부 합동회의는 봄에는 사원에서 모이고 가을에는 외부에서 열린다. 충전교구 총무정사 승원

성화사 교도들

청도 사리암에서 '옴마니반메훔' 염송기도해

성화사 (주교:지광 정사)교도들은 11월 21일 경북 청도 사리암(邪離庵)에서 지광정사와 수심정전수의 지도로 육자대명왕 진언 '옴마니반메훔' 염송불공을 하였다.

지광정사는 "쌀이 나오는 암자로 쌀이암이 사리암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한자에서 보듯 간사할 사(邪)와 떠날 리(離)를 써서 이기적이고 삿된 마음을 버리라는 뜻의 암자로 불공 염송 시 탐심을 버려라"고 말했다.

사리암은 5대기도 도량의 하나로 나반존자를 모시고 있고, 전국의 불자들이 자주 찾는 기도처이다.

나반존자는 부처님 열반 뒤 미륵불이 출현하기 전까지 중생을 제도하고자 원력을 세운 분이다. 성화사 교도 중 연세가 많은 보살들은 사리암 가는 가파른 계단을 30여분을 올라 노익장을 보였다.

교도들은 이어서 운문사에 들러 경내의 전과 각을 둘러보았으며,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께 참배하였다.

친구들아!
청소년 스키캠프 가자!

겨울방학을 맞아 신나고 재밌는 스키캠프에 참여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요.
불교 총지종은 청소년 겨울 스키 캠프를 개최합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 시	총기 42년 1월 21일 (월) ~ 1월 23일 (수)
장 소	비발디파크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필봉리 1290-14 033.434.8020)
대 상	총지종 교도자녀 (초.중.고)
문의사항	각 사원 주교스승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종단의 교육 사업과 복지사업에 깊은 관심

인도의 TBMSG 청년들 방문

(Trailokya Bauddha Mahasangha Sahayaka Gana)

인도의 TBMSG(Trailokya Bauddha Mahasangha Sahayaka Gana) 청년들이 본 종단을 방문하였다.

TBMSG는 인도의 대표적인 재가불교 단체이다. 이 단체는 '서방의 불교도들(Friends of the Western Buddhist Order)'이라는 종단의 인도 지부이다.

'서방의 불교도들'은 상하락시타(Sangharakshita) 스님과 그의 제자들이 1979년에 세운 종단이다.

상하락시타 스님은 영국인으로서 1964년까지 20년 동안 인도에 살았는데 이때 암베드카 박사를 알게 되었다.

암베드카 박사가 죽은 후에 박사의 새 불교 운동을 돕기 위해 이 종단을 세웠다.

암베드카 박사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불가촉천민 출신으로서 인도 초대 법무장관을 지냈다. 그는 불교를 통해 인도의 불가촉천민을 해방시키려 하였다.

힌두교가 카스트제도를 지탱하는 것과 달리 불교는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다.

박사의 이러한 노력으로 1956년에 350만 명의 불가촉천민이 불교로 집단개종을 행하여 근대 인도불교의 시발점이 되었다.

TBMSG는 현재 국제적인 불교 운동단체로서 전 세계에 60개가 넘는 센터를 가지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가난한 어린이 및 청장년들을 위하여 초등학교 교육, 바느질과 같은 직업교육, 의료사업, 각종 문화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본 종단을 방문한 청년들은 한국의 주요 불교 종단을 견학하고 한국 문화를 알기 위해 한국을 찾았는데, 본 종단이 재가종단이란 점에 매우 흥미를 가졌다.

또 본 종단이 학교를 운영하는 등 교육 사업에 노력을 기울인 것에 감동하였다.

김종렬 기자

"밀교는 대승불교의 가장 마지막 단계 나와"

법장원, 동국대일본불교연구소 공동주최

"일본의 밀교"주제 세미나 개최

법장원은 11월 17일 통리원 반야실에서 "일본의 밀교"를 주제로 일본불교사연구소와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종단 승직자들과 많은 학자들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지성 통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이번 학술세미나를 계기로 '대승불교의 정화라고 자부하는 밀교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와는 모든 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표현하였다.

부산대 정천구 박사는 〈와카에 대한 밀교적 해석-〈〈샤세키슈(沙石集)〉〉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정천구 박사는 와카는 애초에는 문학으로 다루어졌으나 차츰차츰 불교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문학을 넘어서 철학적 해석이 더해지는 데까지 이르렀으며, 무주 이치엔의 〈〈샤세키슈〉〉는 와카에 대한 불교적 해석, 특히 밀교적 해석을 통해 와카의 미적을 한 차원 높여주었다고 하였다.

동구대의 아킴 바이어 교수는 〈세계 문헌 읽기: 신이치 츠다의 "위기의 탄트리즘"에 대한 제고〉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바이어 교수는 밀교는 자비와 정적주의 사이의 뾰족한 산등성이에 위치에 있는데, 이는 도덕과 지성이라는 두 종류의 자량(資糧) 혹은 행위의 논리와 그 결과의 축적이라는 대승적 발상이라고 츠다에 의해 해석되었으며, 밀교적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세계에 대한 긍정이라고 보았다.

법장원의 보정 김종인 박사는 〈일본 근대 재가불교에서의 근대성과 전근대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김종인 박사는 일본의 재가불교 교단은 근대사회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 교단들은 근대 도시화 과정 속에서 농촌의 공동체적 삶에서 떨어져 나와 도시에서 의지처가 없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안한 삶을 살게 된 중하층민들이 필요로 하는 종교 양식을 갖춤으로써 큰 성장을 하였다고 보았다.

이들 교단들은 신행면에서는 전근대적인 신부주의적이고 미신적인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근대의 보편적 인간관을 반영하고, 삶의 지향점에서도 초월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경제적 안정과 같은 현실 생활에서의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 가치를 두어 근대의 세속적 인간관에 호응하고 있다고 보았다.

화령 교육원장은 〈空海 〈〈十住心論〉〉의 사상적 배경으로서의 〈〈大日經〉〉과 〈〈大日經疏〉〉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화령 교육원장은 공해는 자신의 교판을 확립하기 위하여 주로 〈〈대일경〉〉 〈주심품〉을 활용했는데, 〈주심품〉에서는 깨달음의 실상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는 각종 단계, 그리고 마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공해의 해석에 의하면 밀교는 대승불교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대승불교의 모든 교리를 종합하고 보완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는 다른 그 어떤 종파보다도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했다.

또 화령 교육원장은 공해의 이러한 노력에 의하여 진언종은 당시 일본에서 다른 모든 종파를 제치고 가장 세력 있는 종단으로 급성장하기 시작했으며, 수많은 진언밀교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최상승의 가르침을 받들고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진언밀교에 대한 그들의 신심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공덕을 누리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공해의 사상적 바탕이 되는 것은 대일경과 대일경소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김종렬 기자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장
통일

호국안민기원대법회
총기 41년 불교총
대민관불

제1회 만다라배
불교축구대회
2012년 9월 15일 (토)
하남시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불교총지종

총기 41년 총지종 스케치

총지종 총기

총기 2556년 총지종 연등축제

〈밀교연재〉

법경 정사가 전하는
밀교의 불보살 이야기 (8)

성관음보살 · 십일면관음보살

법경 정사

▲ 경주 석굴암의 십일면관음상

지난호에서는 관세음보살과 변화관음보살에 대해 살펴보았고, 대표적인 변화관음으로 육관음보살(六觀音菩薩)이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육관음 중에 성관음보살(聖觀音菩薩)과 십일면관음보살(十一面觀音菩薩)을 살펴보고, 다음호에서 천수관음보살(千手觀音菩薩) 준제관음보살(准提觀音菩薩)을 그 다음호에서 마두관음보살(馬頭觀音菩薩)과 여의륜관음보살(如意輪觀音菩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관음보살(聖觀音菩薩)

가장 일반적인 관세음보살, 변화관음보살의 본신(本身)

가장 일반적인 관세음보살인 성관음보살(聖觀音菩薩) 은 변화관음보살 가운데 다른 다섯 관음보살을 대표하는 보살로 다른 변화관음보살과 구별하기 위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정관음보살(正觀音菩薩)이라고도 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중생의 번뇌와 고통을 들어주고
나아가서 즐거움을 주는 보살"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의 기본 형태의 보살로 자비를 베풀어 중생의 번뇌와 고통을 들어주고 나아가 즐거움을 주는 보살로 묘사됩니다. 그런 이유로 성스러운 관세음보살입니다.

수많은 불보살 가운데 자비를 지니고 있지 않은 불보살이 없고 중생을 구제하고 즐거움을 주지 않는 보살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왜 유독 관세음보살을 자비의 화신이라 하고 중생구제의 대표적인 보살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난호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중생들을 구제하시는' 구세구난(救世救難)의 보살로 다른 불보살 보다도 자비와 베품, 중생구제의 대표적인 보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명중생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두루두루 살피시며 중생들의 근기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투시니 어찌 관세음보살이 구세구난(救世救難) 구고구난(救苦救難)의 화신이라 아니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젖먹이 아이에게 아주 소중한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으며 이 성관음보살은 중생을 구제하는 관음보살의 위신력에 한 가지를 더해 육도(六道) 가운데 아귀도(餓鬼道)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는 보살입니다.

▲ 성관음보살상

성관음보살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이 보살의 존상(尊像)은 머리에 보관(寶冠)을 쓰고 천의(天衣)를 걸치고 귀와 가슴에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팔과 손목에는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하고 왼손은 봉우리의 연꽃을 들고 있거나 감로수병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끝을 맞대고 꽃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연꽃은 깨달음, 즉 부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꽃봉오리가 만개(滿開)하지 않은 채로 표현된 것은 장차 활짝 피어나 부처가 될 것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중생이 무명에 가려 아직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불성(佛性)을 가진 중생이 아직 개현(開顯)하지 못하였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육도(六道) 가운데
아귀도(餓鬼道)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는 보살"

그러나 개현(開顯)하지 못한 불성(佛性), 왼손의 꽃봉우리를 만개(滿開)토록 하는 역할이 바로 오른손의 연꽃 모양의 수인(手印)입니다. 이러한 형태 외에도 양손을 가슴 위에 두고 보주(寶珠)를 지니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연꽃을 들거나 감로수병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대표적인 존상(尊像)은 첫째 머리에 보관(寶冠)을 하고 둘째는 한 손에 연꽃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찰을 순례할 때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보살상을 보게 되면 바로 관세음보살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대개 관세음보살상의 머리 위의 보관(寶冠)에는 항상 불상이 하나 새겨져 있는데, 이 불상은 서방 정토의 부처인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출생보처불(出生補處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찰의 '미타전' 이나 '극락전 '무량수전' 에 아미타불의 삼존불로서 협시보살로 관세음보살이 모셔지고, '관음전' 이나 '원통보전' 에는 바로 주불(主佛)로 모셔지기도 합니다.

십일면관음보살(十一面觀音菩薩)

중생의 근기에 따라 열 한 가지의 얼굴로 나투신 관세음보살

성관음보살 다음으로 많이 신앙되었던 관음보살로 십일면관음(十一面觀音)이 있습니다. 십일면(十一面)이란 얼굴이 11개란 뜻인데, 머리 위에 11개의 작은 얼굴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중생들을 모두 두루두루 살피기 위하여 11개의 얼굴을 가진 모습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십일면관음보살이라는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이 보살상을 보면, 본신(本身)의 얼굴이 있고, 그 머리 위에 분신(分身)으로 11개의 또다른 얼굴이 있는데, 이를 십일면(十一面)이라고 합니다. 11면의 얼굴은 정수리에 3개, 그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의 얼굴이 있고, 정면과 뒷면에 각각 1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를 합하면, 11면이 됩니다. 여기에 본신의 얼굴까지 합하면 총 12개가 됩니다. 그러나 12개라 해서 이 보살상의 이름을 십이면보살(十二面菩薩)이라 하지 않습니다. 십일면관음(十一面觀音)이라 한 것은 본신은 빼고 나머지 11면을 지칭하여서 이름붙인 것입니다. 왜 십일면(十一面)을 부각시켰을까요? 이 십일면(十一面)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일면은 중생들을 제도하는 관음보살의 방편신(方便身)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살상의 본 얼굴은 본지신(本地身)이고, 11면의 얼굴은 본지신(本地身)의 분신(分身)으로서 바로 방편신(方便身)에 해당합니다. 방편(方便)은 무명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데는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방편이 바로 11면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 경주 석굴암의 십일면관음상

십일면(十一面)의 면면(面面)을 살펴보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11면의 배열은 일정치 않습니다만, 대개 정수리 위의 세 얼굴은 온화한 자비의 보살상[자상(慈相)]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온화한 모습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거두어 들이고 있습니다.

"육도(六ㅈ道) 가운데
아수라도(阿修羅道)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는 보살"

왼쪽의 세 얼굴은 공포와 분노를 상징하는 진노상(瞋怒相)의 얼굴입니다. 화난 얼굴로 악한 사람을 꾸짖으며 말을 듣지 않는 중생들을 타일러서 구제하려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세 얼굴은 백아상출상(白牙上出相)으로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얼굴로 선한 중생들에게는 더욱 큰 희망과 용기와 지혜를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후면에 있는 한 개의 얼굴은 크게 웃고 있는 대소상(大笑相)의 얼굴로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구제하려는 대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면에는 여래상(如來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여래상은 얼굴로 되어 있는 다른 10면과 달리 전신(全身)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신(全身)의 여래상은 바로 부처님을 뜻합니다. 보살상이 아니라 바로 부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래상은 본래 불성을 가진 중생들이 구경에 이르게 되는 불과(佛果)를 상징한 것입니다.

십일면의 배열은 중생들이 가지는 근심과 괴로움, 병고(病苦)와 장해(障害), 악심(惡心)과 현세의 모든 고통을 여의고 깨달음에 이르게 합니다. 특히 육도(六道) 가운데 아수라도(阿修羅道)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관음보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십일면관음보살이 지니고 있는 지물(持物)을 살펴보면, 중생구제의 뜻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왼손은 감로수(甘露水)의 정병(淨甁)을 들고 있고, 오른손은 염주를 쥐고 있습니다. 간혹 염주를 영락(瓔珞 –구슬 목걸이)으로 보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들은 영락이라 표현하지만 불교계에서는 염주로 보고 있습니다. 염주가 좀 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십일면관음보살의 지물(持物)인 감로수(甘露水) 정병(淨甁)은 소원성취를 상징하고, 염주는 중생의 번뇌를 단절시키는 것을 나타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이 지물은 무명중생의 번뇌를 없애고 일체소원을 성취시켜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십일면과 지물(持物)이 십일면관음보살의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십일면관음은 『십일면관음신주심경(十一面觀音神呪心經)』을 근거로 하여 중국과 한국, 일본 등지에서 크게 신앙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십일면관음상이 바로 경주 토함산 자락의 석굴암 본존불 뒤쪽에 조각된 십일면관음상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석굴암의 십일면관음보살상은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와 무지(無知)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일제 강점의 흔적과 소중한 문화유산의 훼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의 십일면보살입상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부조(浮彫)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후면의 대소상(大笑相)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일본의 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후면의 대소상(大笑相)을 기어이 머리 꼭대기에 새겨 놓았습니다. 십일면관음보살의 수(數)를 맞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통일신라시대에 불심 깊었던 우리 선조들의 안목과 이해력에 감히 비할 바가 못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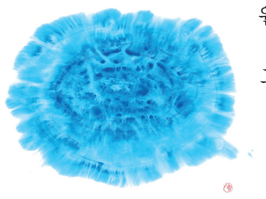
"십일면보살은
나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

십일면관음보살은 우리에게 커다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십일면의 관음보살이 조각에만 존재하고 있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주치는 사람 모두가 십일면의 관음보살들입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 반대로 즐거움과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 온화한 미소로 항상 따뜻함을 전해주는 사람, 마음으로 다가 오는 사람 등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만 가지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마주치는 사람들을 모두 나의 십일면관음보살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운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법을 길러주고, 좋은 사람은 변함없이 오랫동안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 주고, 모든 것을 걸림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깊은 이해심과 참을성을 길러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우리들의 불보살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우리들의 십일면관음보살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어떤 십일면관음보살일까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각자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호에서 천수관음과 준제관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풍경소리

노력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원하는 겨로가가 나오지 않는 것은
그 노력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더해야 할 노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소연 |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Efforts

When I didn't get the result I wanted
despite my best efforts,
it wasn't because the efforts were wrong,
but because more efforts were needed.

Yi So-yeon, First Korean Astronaut

Translated by Kim Sun-ae

사랑하며 사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심 스님 | 월봉사 주지

A person Who Loves
A person who loves many people
is happier than one who is loved by them.

Ven. Osim, Abbot of wolbong Temple

Translated by Kim Sun-ae

이달의 사진

"채마밭에 가을은 물들고"

사진 = 안동 봉정사 김종열 기자

내용참조: "불교총전" 덕행편 p416